

# ‘계란 투척’ 野 자작극 논란 거센데... 1인 시위 원천봉쇄

### 현재 정문 옆尹지자 농성 천막까지 철거 압력 경찰, 野 의원엔 90도 인사... 與 의원은 출입 막아

‘백혜련 의원 계란 투척 사건’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20여 일간 지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순식간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겹겹이 차 벽과 함께 현재 정문으로 가는 길목에는 두 겹의 경찰 펜스와 방호벽이 세워졌다. 기동대원들이 이곳을 지키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모습이다. 계란 투척 사건으로 몰아닥친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순식간 벌어진 자작극 논란 ‘계란 테러’에 대한 민국 시민이라면 응당 보장받아야 할 1인 시위권마저 봉쇄되어 버린 셈이다.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골목으로 통하는 안국역 3번 출구 일대는 경찰 차 벽으로 원천 봉쇄됐다. 20일 오후부터 본격 설치되기 시작한 방호벽-경찰 펜스로 도로 통행이 엄격하게 금지됐다. 이날 오전 기준 이곳을 지나 헌법재판소 정문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이들은 △야야당 당직자 △국민의힘 변호인단 출입증 소지자 △헌법재판소 직원증(출입증) 보유자 △기자 증 보유자이다.

20일 오전까지 국민변호인단은 이곳에서 실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

으며 자유 우파 진영은 기자회견을 했으나 경찰에 의해 철거당했다.

최근 단식자들을 위해 설치된 천막 내 20여 명의 인원만이 침묵 속 평화시위를 지속하고 있었다. 1인 시위자 및 릴레이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원내·원의 위원의원과 국민변호인단 운영진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현재 앞에도 차 벽이 세워져 현재 정문 앞에서 직원과 재판관을 대상으로 하던 1인 피켓 시위마저도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다. 기자가 체류한 두 시간 정도, 큰 소리가 나면 변호인단 관계자들은 이들을 만류하며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다” “큰 소리가 나면 천막마저 치워질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앞의 차 벽을 3m 간격으로 지키고 있는 기동대원들은 조그만 소란만 있어도 정보관과 함께 찾아와 이들을 삼엄한 분위기로 지켜봤고, 변호인단은 “별일 아니다”라며 경찰관을 다독이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하루를 앞두고 ‘진공 상태’나 다름 없어진 현재 앞을 두고 국민의힘 탄핵반대원외당협위원장

모인(탄반모) 소속 위원장들도 경찰을 비판했다. 탄반모는 20일 밤에 2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시위를 하며 이곳을 순차대로 지켜왔다.

A위원장은 “(집회 장소까지) 들어오는데, 재선 의원 출신 현직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인솔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해 주더라”라며 “여당 정치인을 복한 간첩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민의를 위한 공무(릴레이 시위)를 처리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일반 시민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다.

B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면 경찰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라”며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은 현재에서 방문증까지 따로 받아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찰이 여야당에 따라 출입 허가에 편파적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누가 누구를 봐준다는 것이냐”며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C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과 군이 국회 경내와 경외에 투입됐다고 하지만 누구도 출입에 제한받지 않았다”며 “한남동부터 현재 앞까지 경찰은 개미 한 마리도 못지나가게 하겠다며 도로 통제를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거리 100여m에 경찰이 펜스를 친후 2m 간격으로 서서 경계를 서고 있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뇌부와 결탁 의혹으로 이를 이끌고 있다고 주목 받는 야당이 내란 공모와 내란 주동을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의 배경에는 ‘백 의원 경찰 테러 사건’이 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단 10여 명은 20일 오전 현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담당 파면하라” 구호를 외치던 도중 주변에서 던진 낱계란이 백 의원 얼굴에 직격했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다.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직후 관할인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당시 20일 밤에 현장을 지켜 온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및 경찰 간 유착 의혹이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막무가내식이었다. 핵심은 △갑자기 등장

한 낱계란과 이를 백 의원에게 투척한 이가 ‘윤석열 탄핵 파면’ 피켓을 든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점 △스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경찰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하기에 앞서 대형 우산을 펼쳐 들었다는 점 △백 의원이 왼쪽에서 계란을 맞자마자 오른쪽을 가리키며 예정된 듯한 제스처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는 점 등이다.

관할 중로경찰서는 21일 현재 앞에서 백 의원이 낱계란을 맞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증하고 있는 경찰이 수백에 유튜브에까지 잡힌 범인을 지금도 못 잡는 이유는 무엇이나?”고 경찰의 ‘보주기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한편, 안국역 3번 출구의 출입 봉쇄 펜스 앞에는 다시금 자유 우파들이 자리를 잡고 1인 시위 및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일 사건 이후 설치된 경찰 펜스 앞에 당일 설치됐는데, 관계자는 “이 길목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좌파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안에 단식농성을 하는 이들을 위협한다”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 전농 ‘트랙터 시위 시즌2’... 25일 트랙터 상경 시위

### 尹대통령 지지자들 맞대응 채비... 충돌 긴장감 고조 경찰, 전농 측에 집회 자제 설득... 금지 통고도 검토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촉구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에 맞대응할 조짐을 내비치고 있어, 경찰이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농 산하 ‘전농준 투쟁단’은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까지 트랙터 행진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전농준 투쟁단은 작년 12월16일에도 트랙터 30대·화물차 50대를 앞세워 상경 시위를 벌였다. 당시 남태령 일대에서 서울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과의 대치로 28시간 이상 교통이 마비됐다. 하지만 경찰-전농 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의 교섭으로 경찰 차벽은 철수됐고, 전농은 대통령 관저를 향해 행진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는 지난 12월 최초의 ‘트랙터 상경 시위’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력이 훨씬 커진만큼, 경찰은 이들의 충돌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즉각파면 내란세력 청산  
전농준투쟁단 서울자진적 집회

3/25(화) 오후 1시 30분  
남태령 집결

1:30-2:00 집결, 선전을 부차 등 준비  
2:00-3:00 윤석열 즉각파면 결의대회  
3:00-5:00 광화문으로 트랙터 행진  
5:00-7:00 정비 및 저녁식사  
7:00- 밤시인대행진 참가

\*선전물은 중앙에서 제작하여 당일 배포  
\*투쟁단 조끼·머리띠·모자 등 복장 착용  
\*개별행동 자제 및 안전사고에 절대 유의

전농준투쟁단

25일 예고된 집회의 일정. 전농 페이스북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전농준 투쟁단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농 측에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집회 금지 통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농준 투쟁단이 알린 이번 2차 행진의 목적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광화문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시위의 향방이 주목된다.

한편, 전농준 투쟁단의 총대장을 맡고 있는 하원오 전농 의장은 2022년 1월25일 19기 전농 의장으로 선출되어 2024년 1월 30일부터 연임 중이다. 그와 함께 19기 임원으로 선출됐던 고창건 사무총장은 임기 중인 2023년 4월5일, 제주 이적단체 ‘ㅎㅎ’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재판 중에 있다.

구하원 기자 arawave@skyedaily.com

### 덜미 잡힌 악질 성범죄자

범죄 장면 세탁기에 비취  
항소심서 징역 8→7년 감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악질적인 성범죄를 반복하던 2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 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감금·강제주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4월 여성 B씨와 교제하면서 6차례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

에도 감금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따르면 B씨는 A씨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 사진들과 성관계 영상들을 발견한 뒤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다음날 B씨는 A씨를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B씨가 제출한 약 39분의 영상 중 두 사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장면은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 탐독 과정에서 세탁기 뚜껑의 플라스틱 부분에 반사된 장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나머지 약 37분간의 추가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